

주일의 말씀

부자는 라자로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철 요셉 신부
옥산성당 주임



그는 자기집 대문간에 누워 있는 라자로를 종들을 시켜 때리거나 구박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부자는 라자로를 도와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부자는 라자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전에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라자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 누워 있는 라자로의 비참한 삶은 부자인 그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문 앞에 누워 있는 라자로.’ 여기에서 ‘대문’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대문은 부자에게 땅의 소출과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문인 동시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집의 대문은 부를 모으는 데에만 이용되었고 나누는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자집 대문 앞에 누워 있는 라자로의 비참한 모습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후에 부자는 라자로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세상에서는 라자로가 부자의 식탁을 올려다보았지만 사후에는 부자가 라자로를 올려다봅니다. 위치가 바

뀌었습니다. 부자는 애원합니다.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나누어 주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부자들보다 사귀셨고 가난한 이들과도 사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유용하게 쓰도록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므로 인간에게는 이를 잘 맡아볼 관리권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진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그 품위를 유지하고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부자와 라자로가 모두 함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나눔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대구주보

생명의 말씀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루카 16,25 참조
아모 6,1-4-7 1티모 6,11-16 루카 16,19-31.

2.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 무명 순교자들

문화홍보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이어 우리나라 사 람으로는 두 번째로 사제가 되신 최양업 토 마스 신부님은 비록 갈날 아래 순교하지는 않으셨지 만 전국 각지를 걸어 다니시며 선교와 사목에 일생 을 바치셨습니다. 병과 과로로 40년 짧은 생애를 마 감하셨으니 땀으로 순교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서양 선교사들이 사목 순방 하기 어려운 지역을 맡으셨는데, 관할구역이 충청 도, 경상도, 전라도에 걸쳐 있었습니다. 최양업 신부 님께서 남기신 서한 곳곳에는 경상도 지역을 다니시 며 활동하신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구에 열심히 노파가 한 사람 있는데, 그 노파는 많은 사람에게 교리를 설명하여 신자촌을 세웠고 철 저한 교리교육과 신심의 모범으로 신자촌을 지탱하 여 왔습니다. 그 노파는 체포되어 문초를 받을 때 웅 맹하게 신앙을 증거한 후 혹독한 매를 맞고 순교하 였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혹시라도 당신의 편지가 발각되어 교우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봐 교우촌의 위치나 교우 들의 이름을 거의 적지 않으셨습니다. 한 줄의 글, 한

마디의 소문만이 우리에게 전해진 할머니의 전부입 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 “대구의 열심히 할머 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 한 분만 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름 모를 선조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셨습 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 이승에서 이름을 알지 못하던 저 대구 할머니도 주님 안에서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할머니를 아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더라도, 당신이 몸소 부 르신 우리들 하나하나가 주님께는 다 소중한 사람들 입니다. 할머니와 무수한 무명 순교자들이 생전에 피를 흘리셨던 이 땅과 우리들 후손들을 위해 지금 도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명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 하실 할머니, 저희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보 람으로 삼고 할머니처럼 열심히 살도록 주님께 빌어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미사

연중 제26주일

입당성가

41 형제에게 베푼 것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 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 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파견성가

285 103위 순교 성인

영성의향기

::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가정에서, 단 체에, 외톨이이며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오늘 날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멋진 양로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 다.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 가 없었고 졸음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쭙었더니 누군가 그분들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가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생명의 빵을 매일 받아 모시는 우리에게 참으로 잘 들어맞는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 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쓰다 남은 것을 제게 주시길 원치 않습 니다. 우리의 가난한 형제들은 여러분의 동정이나 자선을 필 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선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이 성체성사와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빵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가난한 이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 교구 사목국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글 - 깊은생각

불리한 조건



캐나다 총리 장 크레티앙은 ‘시골호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수수하고 부인과 함께 근처 피자 가게에 불쑥 나타나곤 하는 소탈한 성격이다. 그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먹고 안면 근육 마비로 입이 비뚤어져 발음이 어눌했다. 그런 그가 신체장애를 딛고 93년 총리가 된 이래 세 번이나 총리를 역임 했다. 총리의 신체장애는 때로는 정치만화가 풍자 대상이 되었고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져 호기심 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의 일이다. “여러분, 저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때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그러자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는 1963년 스물아홉 살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40여 년 동안 정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자신의 신체장애와 그로 인한 고통을 솔직히 시인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한다.’ 그렇다. 치명적인 결점은 재능의 부족이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 옮겨온 글입니다. -

★ 모임 / 행사 ★

제13회 창작생활자가 경연대회

- 예선심사: 9.30(목), 본선: 11.13(토) 19:00
- 문의: 3대리구청 사무실 634-0653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제대 꽃꽂이 봉사자 강좌반

1기생 졸업작품전

- 일시: 10.1(금)12:00~4(월)14:00
-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건 자율형 사립고 입학설명회(1차)

- 일시: 10.2(토) 15:00, 대건고등학교 대건관
- 대상: 중3 학부모
- 문의: 대건고등학교 631-9681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한마음 축제

- 일시: 10.2(토) 19:30, 구미문화예술회관
- 출연: 경북도립국악단, 대구 오페라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하석배, 최덕술, 이현, 박재현
- 주최: 5대리구청 사무실 054)468-5400

가톨릭의사회 창립50주년 기념대회

- 일시: 10.3(일) 09:30~15:30, 교구청 교육관 대강당
- 참석대상: 가톨릭신자 의사 및 가족
- 초청특강: 가톨릭의사의 사도적 소명 (이문희 바울로 대구교님)
- 해외의료봉사 체험발표, 초청음악회, 미사

★ 피정 / 성소모임 ★

말씀의 향기

- 내용: 마르코 복음을 통한 거룩한 독서
- 첫모임: 9.28(화) 19:00
- 장소: 포교 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본원
- 대상: 모든 젊은이
- 문의: 010-8519-3431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10.3(일)14:00, 서울정릉수녀원
- 문의: 010-5247-8913/ 02)941-8913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 일시: 10.2(토) 16:00~3(일) 14:00
-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 대상: 고등학생이상~만31세이하 미혼남성
- 문의: 010-8353-2323

LD 'Ad Sum' 첫 모임

- 일시: 10.4(월) 19:00~21:00
-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성심교육관
- 대상: 기쁨의찬양 원하는 미혼여성
- 문의: 010-9056-9005/ 010-2649-2045 (LD란: Laudate Dominum)

예수의꽃동네형제회, 자매회성소모임

- 일시: 10.10(일) 14:00~17:00, 서울사무실
- 대상: 대학~35세미만
- 문의: 011-464-1265

★ 모집 / 교육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 기간: 9.19(화)~10.9(토)
- 대상: 만 60세 미만 남성
- 문의: 원목실 650-4438, 4442

파스카청년성서모임 팀모집

-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문의: 255-1582(평일14:00시이후)

2011학년도 (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모집

- (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1차 모집: 9.8(수)~10.6(수)
- 홈페이지(<http://www.csj.ac.kr>) 참조
- 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적은돈으로 큰돈 버는

대가대부동산경매테크과정

- 개강: 9월 중 8주과정(수,목)
- 1:1멘토링교육, 무료재수강 가능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캠퍼스
- 문의: 568-9800/ 010-4161-4443

37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콜롬반회
- 초,중,고: 1.2(일)~23(일), 3주, 정규학교
- 대, 일반: 1.2(일)~2.13(일), 6주or장기
- * 과달루페수녀원 or 홈스테이
- 문의: 그린피스E&T 02)3446-4253

성령세미나(2박3일)

- 일시: 10.29(금)~31(일)
- 장소: 고령 월곡피정의집
- 신청비: 12만원
- 문의신청: 대구성령쇄신봉사회 551-9111 <http://www.dgcr.or.kr/>

여성부인정 가정폭력상담원교육생 모집

- 일시: 9.27~12.20(매주 월) 09:30
-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취득반) 5기 개강
- 일시: 10.4~11.12(월~금), 주5회
- 접수: 10.1(금) 까지, 내방접수
- 장소: 교구청 교육원가동3층 255-7221
- 2010년도 요양보호사마지막국가시험대비반
-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254-6115)
- 특강: 초기 그리스도교미술과 비잔틴 문화 안에서 '이론'이란 무엇인가?
- 1차-10.12(화), 2차-10.19(화) 14:00~17:00
- 청강기술: 10.5(화) 14:00, 10.21(목) 19:00

★ 안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이규엽, 이대섭

오순절평화의마를 후원회미사

- 일시: 9.27(일) 11:00, 고산성당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안수
- 문의: 051)782-0765

한국의방선교회 후원회미사

- 일시: 9.28(화) 신암성당 14:00
- 포항 연일성당 19:30
- 9.29(수) 성토마스성당 14:0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02)64-4741~3 <http://www.성가정입양원.com>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9월 27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9월 28일(화) 오후2시	성모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27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비녀의 성모 기도회 미사	9월 30일(목) 오후 2시	성모당
군중후원회 미사	9월 27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미바회 미사	10월 1일(금) 오후 2시	성모당
한티 성지후원회 월례미사	9월 27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성모의 기사회 미사	10월 2일(토) 오전 10시	월배성당수도원
			푸른군대 첫 토요신심미사	10월 2일(토) 오후 2시	성모당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전국 실시
성 모 노 인 복 지 센 터

-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 등급 판정을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돌봐도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 ☎ 달서센터: 564-1577, 남구센터: 475-1577
- 수성센터: 781-9057



카리타스 요양 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53)255-7222 교구청(성모당)내 교육원 가동3층

본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 | 도 | 석 | 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인과
대구 연 세 안 과

iFS아이라식, 백내장,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학교교수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상담전화 626-8881~5

강 북

회 성3차아파트와 화성센트럴

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323-2875

원 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 독 보 청 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www.kusb.co.kr)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판희(안토니오)